

2022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인문계열)

1. 출제문제

-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문제당 800 ~ 1,000자
-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에 해당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기 위해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 포함된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하도록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합의하거나 약정한 정의의 원칙들은 결과적으로 공정한 것이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이 최초의 상황은 도덕적 인격이자 합리적 존재인 개인들 간에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도 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선 정의의 원칙으로 공리의 원칙이 채택될 것 같지는 않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등한 존재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더 큰 이득을 위해 자신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공리의 원칙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인간은 자기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 이득의 산술적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하다.

그와는 달리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이한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첫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이며, 둘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원칙이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한 것일지는 모르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자가 더 큰 이득을 취함으로써 불운한 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복지는 사회 협동체에 의존하는 까닭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나〉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잠재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오늘날 SAT는 수학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이 깊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다섯에 하나다. 가난한 집(연소득 2만 달러 이하) 출신은 그 가능성이 오십에 하나다. 또한 고득점자들은 그 부모가 대학 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다.

〈다〉

백인여성 세릴 흡우드는 혼자 힘으로 어렵사리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졸업한 뒤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자신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가 합격한 걸 안 흡우드는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부유하지 못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주장이었다. 흡우드는 자기의 성적과 자격요건이 합격하기에 충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 측은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높인다는 학교의 사명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 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준으로 입학한 학생 거의 모두 무사히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다.

〈라〉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로 나눌 수 있다. 비례 원리에 의하면, 각자가 노력하여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보편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처럼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는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잣대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공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공정한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의 성적인가 가정형편인가?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 중 하나를 잣대로 쓴다.

비례 원리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체로 눈을 감는 경향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어렵다는 조건도,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유무형의 차별과 배제도, 소수 인종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이 비정규직이어서 겪는 부당함도, 극단적 비례 원리의 세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보편적 권리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비례 원리에 훨씬 충실하고, 그것이 곧 공정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미국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을 상징하는 ‘티파티(Tea Party)’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이 한창이던 2009년 창설되었는데, CNBC 기자 릭 샌텔리는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산 사람들을 정부가 구제해줘서는 안 되며, 당장 목이 말라도 참고 물을 소중히 지켜온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반면, 보편 원리는 진보주의자에게 지지를 받는 경향이 크다. 비례 원리를 밀고 나가다 보면 심대한 불평등도 용인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을 회피하고 고통에 민감한 인간의 성향은 보편 원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 쉽다. 비례 원리가 작동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언제라도 나 자신이 최소 수혜자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은 능력과 성과주의 기반 사회에서의 잠재적 기회보다 크고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간이 쾌락보다 고통에 민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위험을 회피하려면 보편 원리를 지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조너선 하이트는 공정성 연구에서, 비례 원리가 인간의 공정에 대한 직관적 태도를 강력하게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보편 원리가 허위의식이라고 보지도 않았다. 평등을 중시하는 태도 역시 인간의 강력한 본성이며, 이러한 본성은 권력자나 특권층의 압제를 거부하는 대중들의 태도로부터 싹텄다고 주장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가 정의(justice)에 부합하는지 각각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800~1,00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 제시된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원리 중 하나의 원리를 자신의 관점으로 채택하여 아래의 두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여성할당제는 주로 정치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기업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노르웨이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소 40%로 의무화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하였고, 2004년 핀란드는 국영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할당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 공무원 시험 할당제 중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이다.